

Newsletter

Research Institute for HRD Policy,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Vol. 10, June, 2020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4, 218호 HRD정책연구소 <http://kuhrd.korea.ac.kr> Tel: 02)3290-5213 E-mail: kuhrd@korea.ac.kr

칼럼

"HRD 학계 트렌드: 2020 AHRD Conference를 중심으로"



이윤수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AHRD(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는 인적자원개발(HRD) 이론, 프로세스, 프랙티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조직된 HRD 학자, 실무자,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학회다. ATD ICE(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가 세계 최대 규모의 HRDer 컨퍼런스라고 한다면, AHRD Conference는 세계 최대 규모의 HRDer 학술대회다. 실무자보다는 HRD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ATD보다는 소규모 학회이지만 참여자들과 짧은 기간 동안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HRD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HRD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in the Americas (줄여서 AHRD Conference),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UFHRD Conference,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AHRD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in Asia가 있다(a.k.a. AHRD Asia chapter). 각 Conference는 매년 미국 내 다른 도시,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데, 미국은 2~3월경, 유럽은 6월경, 아시아는 11월경에 개최된다. 2020년 6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UFHRD는 COVID-19 때문에 취소되었다.

2020년 AHRD Conference는 미국 Georgia의 Atlanta에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다. 당시 미국은 COVID-19이 확산되기 이전이라 학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참석자 수가 다소 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부 학자들이 COVID-19을 의식해 불참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학회는 작년과 동일한 다음 10개의 Track별로 논문 및 포스터 세션이 운영되었다: 1) Assessment and Evaluation, 2) Critical, Social Justice, Diversity Perspectives in HRD, 3) International, Global and Cross Cultural Issues, 4) HRD Performance and Strategy, 5) Leadership and Career Development, 6)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Change, 7) Research Methods and Foundations in HRD, 8) Technology, E-learning, and Virtual HRD, 9) Workplace Learning, 10) Non-refereed Submissions.

전술한 9번 Track까지는 Refereed Session으로 Full Manuscript Session과 Poster Session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Track별 세부주제별로 묶은 4-5개의 논문을 한 자리에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동시간 대에 복수의 Session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발표 일정을 미리 공개되는 프로그램북으로 확인하고 동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후자는 학술논문이 아니라 포스터 형식으로 제출한 것을 한 곳에 게시하고, 발표자가 포스터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거나 질문을 하면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fereed Session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발표를 할 수 있으나 Non-refereed는 이러한 리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대개 한 세션에 하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식으로 운영된다. Focus session, Professional Development Workshops, HRDtalk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참가하는 분들은 적지 않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 세계적인 석학이나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에서 지적 영감과 자극을 받는 기회를 만끽하시길 권한다. 동료 교수 중 한 분은 학회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동선을 미리 구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는 시간에 누구와 티타임을 가질지까지도 미리 메일로 약속을 잡는다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HRD를 공부한 이래 HRD 학계 트렌드를 물어보는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 변화가 적은 Track 명만 보면 HRD의 영역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Conference Proceeding 제목을 살펴보면 학계의 연구 트렌드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SSCI급 논문이 투고 후 출판되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학회에 제출되는 Conference Proceeding은 학계에 보다 일찍 공개돼 시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일부 아이디어 단계의 미완성 연구도 있지만 현재 HRD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지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HRD Conference에서 발표된 Proceeding을 살펴보는 것은 HRD 학계 트렌드를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키워드를 명시한 235개 Conference Proceeding 키워드 분석 결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 그림들과 같다.

<그림 1> 2020 AHRD Conference 키워드 분석 결과



좌측의 그림은 8번 이상 언급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로, 교육, 훈련, 개발, HRD, 리더십, 경력, engagement, 성과, 여성, 한국, 팀, 문화, 다양성, 이직, 심리, 스트레스, 직장, 이론, 모델, 자본, 직무, 업무, 자원, 사회, 조직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되었음을 보여준다. 우측의 그림은 3회 이상 함께 언급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인적자원개발, 경력개발, engagement, 고등교육, 문헌분석, 리더십 개발, 한국, 직무만족, 감성지능, 심리자본, 조직학습, 학습목표, 이직의도, 직장 내 번영, 여성 리더십, 조직 지원, 목표 지향, 지식 공유, 팀 학습, 조직시민행동, 학습문화, 일의 의미, 조직몰입,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 4차산업혁명, 전이, 소셜네트워크, 사회자본을 주제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AHRD 연구 트렌드가 무엇이나는 질문으로 돌아와 개인적으로는 불가지론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자들은 어떤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관심 연구 영역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시기에 따라 자신의 연구주제가 주목 받아 트렌드로 불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연구분야를 고수한다는 인상을 자주 받았다. HRD 스테디셀러 주제인 교육훈련, 리더십, 문화, 직무만족, 조직학습, 이직의도 등이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준 키워드 분석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물론 4차산업혁명, 학습민첩성 등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개념들도 눈에 띈다. 이는 HRD 연구주제가 사회변화와 실무적 관심에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HRD 관련 저널 중 하

나인 'New Horizons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에서는 최근 COVID-19 관련 HRD 학술논문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학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지금까지 Conference Proceeding으로 제출된 연구물들의 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이 원고는 AHRD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물의 경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무적 관점의 HRD 트렌드와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와 학계의 관계는 실무의 니즈를 학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를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 활용하는 상보적 관계라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내 HRDer들의 AHRD Conference 및 연구 동향에 대한 관심이 더 증대되길 소망한다.

신임 연구원 소개

"신임 공동 연구원 김태성 교수 소개 인터뷰"



김태성 교수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태성입니다. 저는 크레듀, 삼정KPMG 등 기업에서 근무하다 다소 늦게 학위 취득을 한 후 2016년 인천대학교에 임용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한편, 공부와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현재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HRD 전공이

대학 학부과정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A. 대학원 과정에는 HRD 전공이 개설된 학교들이 있으나 학부 과정에는 국내 유일합니다. 따라서 HRD 전문가로 성장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 수행공학, 교육공학, 인사관리, 리더십, 조직행동 등 인적자원개발 및 HR

전반에 대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적자원개발론, 전략적 HRD, 교육프로그램 개발, 퍼포먼스컨설팅, 캡스톤 디자인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전공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목으로 통계기반 요구분석, 데이터기반 평가 등의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Q. 최근 HRD 분야에 정말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나 분야는 무엇인가요?

A. HRD 분야는 교육학, 경영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들의 융합으로 성립되었고 발전해 나갈 것이므로, 학제 간 소통과 교학상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평소 HRD와 타학문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HRD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과 실천적 함의를 접목하는 학제적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및 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HRD 분야에서는 아직 충분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HRD 공동체에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환기하고 발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한다면 HRD 연구의 폭을 넓히고 실천 현장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수님이 가장 관심있게 연구하신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전략적 HRD'와 'HRD 관점의 확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직개발과 변화의 확산, 구성원 몰입과 혁신, HRD 윤리, 조직문화의 발전 방향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기업에서의 업무 경험 등을 통해 HRD가 '교육 담당'을 넘어 '지식 리더(thought leader)'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조직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인간과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접근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부분에 저희가 너무 진지한 질문만 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사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가장 인상깊게 보셨던 책이나 영화가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세요!

A.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명견만리'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인구,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김영란법, 북한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시적 이슈들에 대해 광범위한 취재와

논의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읽은 '평균의 종말'이란 책도 재미있었습니다. 소위 과학적 접근이나 통계 등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물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Q. 가장 좋아하시는 음악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나 장르가 있으신가요?

A. 매우 난해하거나 도발적인 느낌의 음악들 외에는 특별히 좋거나 싫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음악이다 싶은 느낌이 들 때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가수나 장르를 불문하고 뭔가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면 다 좋습니다.

Q. HRD 전공 관련 행사에서 교수님을 몇 차례 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다정하게 인사해주시고, 또 다양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글썄요, 잘 모르겠네요(웃음). 다만 기분을 지키면서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발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Q.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수님이 바라보는 교수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나 사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바다'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 균형감과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에 신입 공동연구원이 되셨는데 앞으로 연구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A. 이번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재 발굴 및 시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가량 시행되어 온 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해 보려 합니다.

행사

1

"대한민국 인재상: 지난 20년 향후 20년 포럼"

- 일 시 : 2020. 5. 29 (금) 13:30 - 17:30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강연자 : 조대연 교수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소장), 김태성 교수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유기웅 교수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김은비 교수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연구교수), 권대봉 총장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주 제 :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인재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소장 조대연)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 동강홀에서 "2020 대한민국인재상 지난20년 향후20년"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인재상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또한, 인재 관련전문가, 정책입안자들의 학술연구, 정책소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인재상의 정립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는 세션을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조대연 고려대학교HRD정책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인재상 제도의 현황 ,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태성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교수가 대한민국 인재상의 운영과 쟁점, ▲세번째 세션에서는 유기웅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인재상 해외유사제도 분석 ▲네번째 세션에서는 김은비 고려대학교 HRD 정책연구소 연구교수의 대한민국 인재상 추적 설문조사 및 분석 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은 인천재능대학교 권대봉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각 세션 발표자·토론자·내빈들이 함께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권대봉 인천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 인재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대단히 높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재상제도의 효과적인 발전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림 2> 대한민국 인재상 포럼 홍보물



“대한민국 인재상” 지난 20년 향후 20년 포럼

일시 **2020.5.29(금)** 13:30-17:30 장소: 더케이호텔 서울 (양재동)

주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인재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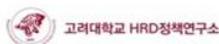
> 대한민국인재상? 교육부에서는 2001년부터 우수인재 발굴과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100명의 다양한 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하는 대한민국인재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방침을 준수하고, 참석자 규모를 50명 내외로 하여 사전신청 방식으로 포럼 운영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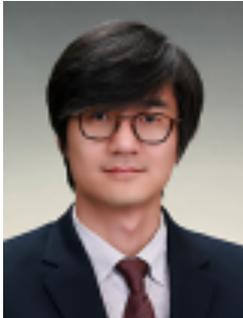
|세부일정

시간	Session	발표자
13:30~14:00 (30')	• 등록 및 접수	
14:00~14:10 (10')	• 환 영 사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조대연 소장) • 인사말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김태형 과장)	
프로그램		
(세션1) 지난 20년		
14:10~15:00 (50')	(발표 1) 대한민국인재상 제도 현황 분석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조대연 소장
	(발표 2) 대한민국인재상 운영 및 쟁점 (토론자) 서울시교육청 김영화 장학관 서울시청 천주환 팀장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김태성교수
15:00~15:20 (20')	Break time	
(세션2) 향후 20년		
15:20~16:10 (50')	(발표 1) 국내외 인재상 유사제도 비교분석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유기용 교수
	(발표 2) 대한민국인재상 수상자 추적조사 및 개선점 (토론자) 인재상 수상자 대표 권민재 한국과학창의재단 문일영 연구원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김은비 연구교수
16:10~17:00 (5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인천재능대학교 권대봉 총장 * 2017 대한민국 인재상 심사위원장

문의: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 02-3290-5213, silverrain@korea.ac.kr



신임연구원 소개



김대영
공동연구원

HRD정책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변화방안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교육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관심 분야는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이다.



정홍인
공동연구원

HRD정책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변화방안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고려대학교에서 성인 계속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관심 분야는 생애발달단계, 미래역량, 평생교육정책 HRD 등이다.